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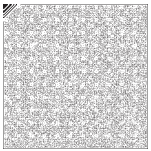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88호

2022년 4월 3일(다해)

사순 제5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이사 43,16-21

화답송 | 시편 126(125),1-2 가. 2다 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필리 3,8-14

복음환호송 | 요엘 2,12-13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음 | 요한 8,1-11

영성체송 | 요한 8,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흘러간 옛노래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고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 43,18-19)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라시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을 닮아 그분 고난에 동참하여,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필리 3,13)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그 여인이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으셨고, 죄에 대한 용서를 별도로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마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안에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

다.'고 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벌써 사순 제5주일입니다. 머리에 재를 받고 시작한 사순절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 신비를 묵상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핵심 신비인데, 우리는 그것을 파스카(Pascha)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파스카는 '거르고 지나간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듯이, 예수님은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파스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과 죽음을 넘어 부활(파스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파스카하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허물로 누벼진 과거일랑 주님께 맡기고, 구원을 향해 나아갑시다. 극기와 절제로써 실천하기로 한 사순절의 결심을 다잡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경축할 때까지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울산 병영 순교 성지 성당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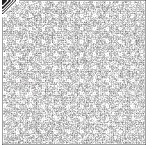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고소하던 유다 지도자들도 떠나갑니다. 울산 병영 순교 성지의 십자가 아래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낍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누군가에게 향하는 돌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새기며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조용민 요셉 | 구글 코리아



| 모든 순간 하느님을 만납니다

구글은 매년 다양한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2018년 역시 장충체육관에서 수천 명이 모여 구글의 인공지능 사례와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사례를 공유하는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당시 인공지능 부분 발표를 맡은 저는 청중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무대로 모신 다음, 태블릿 피씨와 펜을 드리면서 그림 실력은 상관없으니 저희 팀에서 준비한 주제나 사물의 명칭을 혼자 보신 후에 그림으로 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메모장에 낙서하듯이 서툴게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아주 큰 무대 화면을 통해 체육관 안의 모든 청중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의 분수, 팔꿈치, 모나리자 등등 애매모호한 것들을 그려나가는 동안,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림 때문에 콘퍼런스 장내는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허나 동시에 놀라움의 환호성도 함께 터졌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내내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 그림의 주제와 사물을 정확히 음성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까 생각하며 모두가 숨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19년에는 같은 콘퍼런스에서 동탄고등학교 김윤기 학생의 시각 장애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김윤기 학생은 인공지능의 시각 기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시각장애인분들이 길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위험들을 감지하고 이를 진동과 인공지능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시각 기능이 장애인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개발자가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얼마나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도구가 되는지를 강조합

니다. 결국 이타적인 마음,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그러한 기술들을 중력과도 같은 힘으로 끌어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주교 안에서 강조되어온 하느님의 가르침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울림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제임스 마틴 신부님의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를 번역하신 서강대학교 김순기 부총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라는 주님의 초대일 수도 있고, 아끼는 물건이 망가지면 속상해하기보다는 물욕을 버리라는 주님의 초대일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을 겪으면 좀 더 인내하라는 가르침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도구나 재료를 폄하하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폄하하지 않으며, 그럴 시간에 그 상황에 맞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는' 기회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껏 묵상

너희 가운데
죄없는 자가 먼저
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7월 8.9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2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기도란 무엇인가요?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분이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자신이 바라는 바를 끊임 없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저 신앙의 초보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말을 하느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린 후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게 기도란 마음을 들어 올리고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며, 시련이나 기쁨의 한 가운데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는 일입니다."(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나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지금처럼 하느님께 바라는 바를 청원하시고, 기도문을 외우는 염경기도나 묵주기도를 꾸준히 바치시고, 특히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역시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

느님께 바치는 것인데,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 말 그대로 '저자 직강'(!)이고, 기도의 핵심과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첫 부분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이고, 둘째 부분은 바람과 청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내 뜻보다 먼저 하느님 뜻이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는 바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청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요한 15.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여라.'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n mea, sed Tua!(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는 내 뜻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났을 때 결국 더 좋은 선택과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빈곤퇴치사업

미안마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마천주교주교회의 교육주교위원회에서 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나 수녀입니다. 재작년 이맘때쯤, 도움을 요청하시는 시골 마을 공소 담당 신부님의 연락을 받고, 수도 양곤에서 산과 강을 건너가며 차로 꼬박 하루를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시골 마을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신부님은 마을의 유일한 학교로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소수민족과 저소득 가정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보였지만,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유치원이나 아동 보호 시설은 없었습니다.

모든 아동은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안마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주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아동교육 시설이 없는 마을에 유치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양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미안마 내에서도 더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안마 내 수많은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저희는 유치원 1곳을 세우고, 총 16명의 교사를 양성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특히 소수민족과 저소득 가정이 많은 미안마의 소외된 마을 6곳에 유치원 4개를 추가로 설립하고, 일자리가 없는 마을 청년들을 교육해서 교사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40명 넘는 청년 교사가 추가로 양성되어, 이들과 새 유치원을 통해 약 800명의 아동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미안마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군사 쿠데타의 이중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미안마의 아이들을 위해 저희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이 나라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안마의 학교가 하루빨리 아이들의 웃음으로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안마의 모든 아동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교육의 권리를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수산나 수녀 | 미안마천주교주교회의 교육주교위원회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미안마천주교주교회의 교육주교위원회에 지원**되어 미안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활동에 지원됩니다. 총 지원금 4천 5백만 원(미화 3,800달러)을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구촌빈곤퇴치사업'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4월 2일~29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미안마천주교주교회의 교육주교위원회'를 위해 쓰여집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영화칼럼

영화 '언노운 걸' 문을 열면, 마음도 열립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당신이라면
다들까요. 낮
선 누군가 급하
게 대문을 두드

린다면. 그것도 일이 끝난 시간이거나 한밤에. 쉽게 문
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그럼 인터폰을 통해 한눈에 그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을 열어 주겠습니까.

벨기에의 빈민가, 간호사도 없는 작은 클리닉(진료소)
의 석 달 임시 의사인 제니(아델 하에벨 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다급히 인터폰을 누르고 문
을 두드리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순간적인 오만과 이기
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늦게 오면 의사는 쉬
지도 말란 말이야.” 평소 그녀는 가난하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성의껏 치료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려도 불평 없이 집으로 달려갑
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클리닉의 근무가 끝나는 데
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늦게까지 환자가 많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억조차 못 하고 무
심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문을 두
드린 신원 미상의 그 소녀가 강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
었습니다. 세상의 틀로 보면 그녀의 잘못은 없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났고, 응급 환자도 아니었고, 치료를 하
지 않아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잊어버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외면과 무심함조차 허락하지 않으

면서, “너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녀
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누군지도, 무
엇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소녀의 행적을
찾아 나섭니다.

제니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언노운 걸(The Unknown
Girl)>이 보여주려는 것은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무심
히 지나가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거나 당연하다고 여기
는 것들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녀 역시 큰 사명감이나
신념으로 소녀의 죽음에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갔을 뿐
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소녀의 존재를,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매매 강요
로 그 소녀를 실족사하게 만든 남자와 나는 대화가 답
을 해줍니다. “경찰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라.”는 제
니의 요구에 남자는 “왜 내가 그래야 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냐.”면서 거부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녀는 “죽
은 소녀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라
고 말합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소녀
의 죽음에 나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죄책
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의 죽음의 진실이 그렇듯 **어쩌면 우리 모두는 타인의 아픔과 불행에 '공범'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고 지나간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르는 죄까지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을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주님 사랑의 실천이고, 주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요.**

과학과 신앙 간의 부적절한(?) 접목 시도의 예 2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지난달의 글을 통해 저는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던 책인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 2002년 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만큼 과학 개념 사용에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성공과 자기계발을 위해 우주적 기운과 인간의 간절함의 중요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law of attraction)이라는 과학적인(?) 개념을 사용한 『더 시크릿』(론다 번 지음, 2007년 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도 출판 직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교회의 강론이나 저서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긍정도 부정도 실체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강한 생각은 비슷한 기운을 끌어당긴다. 그러니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그럼 우주의 에너지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 책 출판 이후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계발서로 분류되는 이 책이 다른 자기계발서에 비해 훨씬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유는 바로 이 책에 물리학의 용어와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책의 출판과 함께 공개된 『더 시크릿』 비디오의 경우 양자물리학자 한 명이 등장해서 물리학적(?) 용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전 우주적인 원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 할 수 있는 뉴턴의 중력 법칙(우리나라에서 흔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불리고 있죠.)은 인력 법칙(law of attraction)의 한 예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중력 법칙은 어디까지나 질량을 가진 두 물체 간의 끌어당김을 설명하는 법칙일 뿐, 비물질적 실체인 인간의 마음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책은 물질적 실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력 법칙을 교묘하게 비물질적 실체에까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확대 적용’시키는 방식을 활용해서, 우주 에너지와 인간의 마음을 물리학의 인력 법칙을 통해 연결 짓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리학의 인력 법칙, 자기계발서의 공통 주제인 긍정의 힘 강조, 기복 신앙적 태도 등이 적절히 결합된 뉴에이지 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R을 스캔하시면
지난 과학칼럼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0일(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사순 시기 이웃 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차원석(토마스)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차원석(토마스) 신부님께서 지난 3월 23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차원석 신부님은 1950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1976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명동·문산(현, 의정부교구)성당, 대신학교, 가좌동(현, 가재울)성당, 가톨릭대학교 교학부총장, 화곡본동·압구정동·노원(겸 제5 노원지구 지구장)·대치2동 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19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3월 28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 사임, 후임 교구장에 김종강 신부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청주교구장 장봉훈(가브리엘) 주교의 교회법에 따른 사임 청원을 받아들여시고, 청주교구 김종강(시몬) 신부(1996년 사제 수품)를 신임 청주교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민범식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겸)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위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파견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4월 7일 이석충 사도요한 신부(89세)

교구정일림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서주리 개인전: 1전시실
홍부연 개인전: 2전시실
정은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6일(수)~11일(월)

순교자현양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4월5일·5월3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생명위원회

-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공모 안내**
공모일: 4월1일(금)~5월31일(화)
공모분야: 생명과학분야, 인문사회과학분야, 활동분야
세부내용: 생명의신비상.com 에서 확인 가능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 4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4월4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병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12차 미사 4월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성천 본당, 영유 본당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4월23일 10시-묵주기도, 10시 30분-유가족미사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교해소 건물)
문의: 02)318-3079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주교좌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4월3일 14시~16시(부스)·4월5일~24일(사무실) 구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
서류: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참조
교육일정: 5월1일~29일 매주(일) 14시~15시30분(5주간) 대면수업 / 문의: 02)774-1784
견진성사: 6월5일(일) 13시30분 명동대성당 대성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4월4일(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4월11일(월)	오전 10시30분, 길음동성당(중서울)
4월18일(월)	오전 10시30분, 광장동성당(동서울)
4월25일(월)	오전 10시30분, 양천성당(서서울)

‘사순특강’ 교회미술 속 사순과 부활의 상징들

강사: 장궁선 신부(이론연구소 소장)
때: 4월13일(수) 19시~20시30분
곳: 줌(Zoom)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회비 없음(선착순 50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문의: 02)751-4104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상담, 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2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31 고 크리스티나 수녀

청년 Hello 기도 2022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퍼정 때, 곳: 4월5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회관 소성당 / 대상: 청년 누구나
------------------	---



사진 출처: cpbc

별빛 같은 사람 -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사진전

2022. 4.15(금) ~ 5.1(주일) |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

“밤하늘의 작은 별빛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별빛이 되고 싶었던 정진석 추기경님. 하느님 품에 안기신지 벌써 1년이 된 추기경님의 반짝이던 삶을 기억하는 사진전이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추기경님의 생애를 담은 사진과 생전에 저술하신 60여 종의 도서도 전시해 현장에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입니다.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9세~12세 가톨릭 신자 남아 / 문의: 010-5514-3002 자모회장

2022년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 모집

가르멜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교우 / 4월19일까지 접수 / 문의: 010-3459-8905, 010-2213-0537 서울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예수회센터 카페봉사자 모집 및 일상영신수련

문의(접수): 02)3276-7733 예수회센터 행정실 / (토·일)휴무
 1) 예수회센터 이나시오 카페 신입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소정의 바리스타 교육 후 봉사시간 조정 및 선정합니다
 2)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19번에 의한 영신수련) 영적 지도: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의 사제와 수도자들 / 때: 8월31일~12월21일 매주(수) 오전 10시~12시(17주 과정)

김수환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김수환(가제) 오디션

서울가톨릭연극협회는 김수환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김수환(가제)을 공연합니다
 공연: 7월1일~10일, 서강대학 메리홀 대극장(이어 대구·안동·포항 공연이 7월2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모집분야: 김수환 30대 1명·50대 1명, 여러 등장인물들 00명
 대상: 연기 3년 이상 유경험자(가톨릭신자 우선이나 비신자도 가능) / 4월4일~9일 이메일(sactwork@gmail.com) 접수
 오디션통보: 4월13일 / 오디션: 4월21일·22일·23일 발표: 4월25일 / 문의: 010-5617-0246

미사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4월6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음을 4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4월7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 때, 곳: 4월4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 때, 곳: 4월7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 때, 곳: 4월6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팔로티화-천주교사도직회)

자비주일 미사에 초대드립니다 / 때, 곳: 4월24일(일) 12시~16시, 자비의산(홍천군 남면 물구비길 160) / 문의: 010-6212-4450 장화기 신부

영복산 요원 한식 합동 위령미사

한식(4월6일)을 맞아 세종로묘원(영복산)에 영면하신 분들을 위해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때, 곳: 4월6일(수) 오전 11시, 세종로묘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 영복산묘원 평장묘지 분양 후 남은 묘지 100구좌를 추가 분양합니다 / 문의: 02)733-1471 세종로성당 사무실

인간

우양의집(소규모요양원) 어르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 운영: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 곳: 파주시 하직석길 267-74 / 문의: 010-9271-4694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에너지 / 그램: 매월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뽀자비비수녀회)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사별가족모임 '사랑마루'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 4월17일(일)까지 접수 / 때: 5월5일~6월23일 매주(목) 14시~17시(8회) / 곳: 용산성당 교육관(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 문의: 010-8891-4572 용산성당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 심리·가족갈등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상분 기증 안내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순교성지 내)은 오는 7월 '상분(像本)'을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막합니다 이에 가톨릭교회의 첫영성체, 착복식, 종신서원, 선종, 사제서품등을 기증하는 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3142-4504, 4505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라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 4월~5월(두 달)동안 7월~8월 성수기 예약시 15% 할인 적용 /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조리원, 간호조무사 / 주40시간, 기숙사운영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 문의: 02)940-1503

분야: 치과 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 이메일(hfh1990@daum.net) 접수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인상주) / 1522-9415

(재)바보의나눔 신규직원 모집

대상: 신입 또는 경력 무관(운전가능자) / 분야: 모금홍보팀 사원(정규직) / 홈페이지(www.babo.kr.kr) 참조 / 4월8일(금) 18시까지 이메일(hr@babo.or.kr) 접수

면목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분야: 계약직 방호원 1명 / 이메일 문의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성실하신 교우 / 업무: 건물·시설관리, 방호업무, 미화업무, 본당 행사지원 등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통보) / 4월15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2209,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8길 41 면목동성당) 및 이메일(spchae0464@seoul.catholic.kr) 접수(서류는 당일 도착분까지)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4월10일(일) 14시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성심수녀회	4월16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채현주 수녀
예수회	수시	한국관구 성소실	010-6357-0731(vocation.sj@gmail.com)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월9일(토) 14시30분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4월10일(일) 14시~17시	가톨릭회관 311호	010-9620-4820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마태오복음서

가톨릭성서모임 지음
성서와함께 | 88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날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이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꽃잎 한 장처럼

이해인 지음 | 오리여인 그림
샘터사 | 368쪽 | 1만6천원
문의: 02)763-8964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지금, 지속되는 거리 두기로 옆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지금 이 순간, 이해인 수녀는 봄을 알리는 꽃과 같은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연둣빛 바람 부는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시와 글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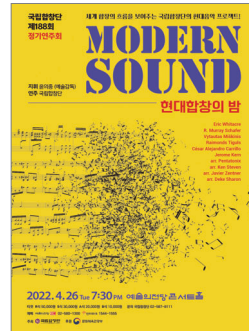


공연

서울시합창단
'봄별 그리운 그곳'

공연일시: 4월 15일(금) 19시30분, 세종M씨어터
입장권: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02)399-100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2명 10% 할인(어
린이및 청소년 50% 할인)

신임 단장과 함께 시작하는 서울시합창단 M컬렉션 시리즈! 작품성과 예술성 등 음악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 중심으로 구성된 1부, 여러 작곡가의 소품곡을 다룬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레퍼토리와 완성도 높은 연주력으로 합창의 매력을 노래한다.



공연

국립합창단 현대합창의 밤
'모던 사운드'

공연일시: 4월 26일(화) 19시30분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02)580-1300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188회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의 밤 <모던 사운드 (Modern Sound)>가 오는 4월 26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현대 합창음악의 특징인 이색적인 화음과 독창적인 리듬 전개 등을 바탕으로 현대음악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cpbc TV 성삼일, 부활 전례 생중계 • cpbc 라디오 봄 개편 안내

[cpbc TV] 성삼일 및 부활 전례 생중계



cpbc TV는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성삼일 및 부활 전례를 시청자 여러분께 생중계로 전달합니다.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부터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대축일까지, cpbc TV와 함께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다가올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성유 축성 미사 방송 시간 | 4월 14일(목) 10시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방송 시간 | 4월 14일(목) 20시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방송 시간 | 4월 15일(금) 20시
- 파스카 성야 미사 방송 시간 | 4월 16일(토) 20시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방송 시간 | 4월 17일(주일) 12시, 20시 30분
- 바티칸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방송 시간 | 4월 17일(주일) 17시 45분, 23시

[cpbc 라디오]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봄 개편(4월 18일)



신부님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들 어보셨나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12시 15분부터 하루 2시간씩 5개 교구 신부님들이 하루씩 DJ를 맡아 한낮의 나른함을 깨웁니다. 어려운 클래식 가라! cpbc 대표 클래식 프로그램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청취자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집니다. 손열음, 김선숙, 양인모 등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의 라이브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클래식의 향기에 빠져보세요. 더불어 평일 오후 2시는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가, 주말 오후 2시는 <2시IN 뮤직, 범범범 황중호 신부님이다>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따뜻한 시간을 채워드립니다.

◎ 사순 시기 판공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활 집중판공이 없사오니 본당 사무실에서 성사표를 받아 4월 12일(화)까지 아래 안내된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을 참고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를 보신 후에는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사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성사표 없이 성사 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 휴무 : 4월 13일(수)~24일(주일)]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일	10:00 ~ 19:00	

※월요일 고해성사(13:00~17:00)는 '성직자·수도자'만을 위한 고해성사입니다. 일반 신자는 상기 표에 안내된 요일·시간에 고해성사 보시기 바랍니다!
 ※상설 고해소는 대성전 뒤 성모동산 오른쪽에 위치한 '영성센터(옛 계성여고 건물)' 안에 있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1월 14일부터 적용)

·언어 :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금요일	16: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5:00 ~ 17:00	
주일	08:30 ~ 08:50	대성전 고해소

◎ 명동대성당 미사

요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일요일 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성전 입당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별도로 적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명동대성당 새벽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모집대상 :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서 평일 및 주일 아침 7시 미사의 해설 및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 교우
 ·접수마감 : 4월 24일(주일)
 ·지원문의 : 단장 ☎ 010-3170-7878 (※문자 요망)

◎ 2022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안내

·견진성사 : 6월 5일(주일) 오후 1시 30분 / 대성전
 ·교리시간 : 5월 1일 ~ 5월 29일 (매 주일) 5주간
 오후 2시 ~ 3시 30분 / 꼬스트 홀

★★ 오후 2시 10분까지만 출석 인정, 5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의 교우
 ·준비사항 : 접수비(현금 1만원)와 아래 구비서류들 지참
 ·신청방법 :
 ① 현장 접수 [4월 3일(주일) 오후 2시~4시 / 부스]
 ②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4월 5일(화)~24일(주일)]
 ☞ 선착순 200명, 사전신청·전화신청 불가!
 ☞ 코로나19 동향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신청 확정 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신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교적 본당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타 본당 교적신자	상기 구비서류(①~④)	교적 본당
	⑤ 신청자 본인 교적증명서	
	⑥ 견진의뢰서	

※접수비(카드·계좌이체 불가) 포함, 상기 안내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교적 본당 주임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월 22일(주일)까지 '견진성사 감사예물'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주일) 교육 후에는 견진성사 전례연습을 진행합니다. (☞ 30분 정도 소요)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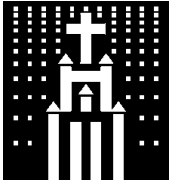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9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5514-3002

◎ 명동대성당 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대상 : 세례를 받은 35~45세 교우
 ·문의 : 평화의 모후 Cu.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합 진행 중 (추후 대면 회합 진행 예정)

◎ 명동대성당 주일미사독서단 신입단원 모집

·접수대상 :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50세 이하 성인 남녀 신자로 주일미사의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 교우
 ·접수마감 : 4월 27일(수)
 ·접수문의 : 단장 ☎ 010-2700-2702 (※문자 요망)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한식 합동 위령 미사 》

4월 6일(수) 「한식(寒食)」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가족, 은인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로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한식 합동 위령 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들은 4월 5일(화)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한식 당일 합동 위령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4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월 입교 시 세례성사는 10월에 거행되며, 4월 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사전 신청 불가)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1호	송정섭 (시몬)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2호	이 젤뚜르다 수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 준비물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여 필수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에는 정순택 베드로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에 피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시어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 4월 7일(목) 오후 8시 / 대성전

◎ 나눔봉사자 교육(바오로학교 4기) 수강생 모집

명동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 나눔교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바오로학교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예비신자들의 신앙 길잡이와 모범이 되어 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구비서류 : ① 나눔교리 봉사자회 입단 신청서
- ② 교적 사본 ☞ 교무금 납부내역 포함

·접수기간 : 4월 1일(금) ~ 4월 24일(주일)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및 본당 대표메일 (mdsdca@catholic.or.kr)로 접수

*'입단 신청서' 양식과 지원 대상 및 선발 조건에 대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조

◎ 성주간 전례 안내

일 시	내용/시간	집전자	장 소
4월 14일 성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오전10시)	정순택 대주교님	대성전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유경춘 주교님	
4월 15일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손희승 총대리주교님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구요비 주교님	
4월 16일 파스카성야	부활 성야 미사 (오후 8시)	정순택 대주교님	
4월 17일 부활대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정순택 대주교님 * 미사는 주일 미사 시간과 동일 (단, 오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성 목요일부터 파스카 성야까지는 위 전례 외에 다른 미사가 없습니다.

* 4월 15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지 보호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안내

- 견진성사 : 6월 5일(주일) 오후 1시 30분 / 대성전
- 교리시간 : 5월 1일 ~ 5월 29일 (매 주일) 5주간
오후 2시 ~ 3시 30분 / 교스트 홀

★★ 오후 2시 10분까지만 출석 인정, 5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의 교우

*견진교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기타 유의사항은 '주보 안쪽 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

다음 주 4월 10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당일 미사에는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행한 희생, 특별히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것을 2차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21-3/27).....23,990,130
 - 사순 제 4 주일 헌금.....17,433,000
 - 감사헌금 (3/14-3/20).....2,196,000
- 고 니콜라오 / 김 발렌티노 / 박 보나
배 바오로 / 이 리베라도 / 이 미카엘라
이 사라 / 이 안젤라 / 임 사무엘
현 베로니카 / 홍 가타리나 / 황 데레사